**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7월 5일**

## 안 식 히4:1-8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주제가 있지만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 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으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그는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고 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지금도 그는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하고 도망한 신세였고 그냥 양치기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40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고 광야에서는 수 많은 응답과 기적으로 지도자의 인생을 살았으며 그의 인생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2사람의 공통점은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24 기도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전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을 받고 따라 가는 것이 지속되면 현장이 살아나고 예비된 응답과 사람을 지속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성경과 교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응답과 인생을 위하여 예배가 확실히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항상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피 제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피 제사가 사라진 것은 그 제사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물도 제물도 없어졌습니다. 예물과 제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게 되어 있는데 헌금이 사라졌으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성소와 제단에 관한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나라 전체에 재앙이 일어나고 나라가 그렇게 되니 개인은 두 말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민18:5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배의 직무를 다하고 우리는 언약 가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나라와 후대가 삽니다. 우리가 예배에 마음을 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므로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인생이 회복되므로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1. 안식**

1) 오늘 본문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1절 그의 안식 3절 저 안식5절에서는 내 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은 천국의 영생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 라고 말씀하십니다.
2) 그리고 2절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영생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 하나 뿐이며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요1:12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고 막5:34 에서는 주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3) 그리고 3절 뒷 부분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것이 창조때 이미 정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문 중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 라고 하셨는데 이 “그들은” 3장에서부터 읽어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안식이 가나안 들어가는 안식인지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5절에도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 하셨고 또 6절에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

5)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천국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뜻인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뜻인지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6)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이 안식이 어느 안식을 말하는지는 상관없이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순종과 믿음과 창세전입니다.

7) 2절 그들이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했고 3절은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했고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은 세상을 창조할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안식을 말하는지에 상관 없이 순종하여 주님을 믿고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는 것을 결론으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8) 그리고 7절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 하셨는데 이것을 8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 즉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므로 그때 완전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구태여 또 다른 날을 정하여 “오늘” 이라 말하고 그 때에는 완고하지 말고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가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0)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오늘” 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그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늘이 임하면 순종하여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증인되라는 뜻일 것입니다. 안식은 평안을 말합니다. 사단은 항상 불안합니다.

11) 아무리 굿을 하고 빌어도 사단을 따르는 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므로 더 귀신을 섬기는 악 순환이 지속됩니다. 이 상태에서의 해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피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잡혀 있는 곳으로부터 해방입니다.

12)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웃기는 일이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전국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초태생만 골라서 다 죽었습니다.

1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를 애굽 전국에 보이시고 그 시대를 향하여 선언하신 날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오늘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시 한 번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응답 받고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